

위기관리 연구의 흐름과 동향: 최근 10년간의 국내 학위논문 분석

백진숙

위기관리는 언론학적 관점, 행정학적 관점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위기관리 연구가 30년이 가까워지는 현재, 위기관리 연구 형태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위기관리의 학문적·실무적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간의 국내 학위 논문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기관리 학위논문의 학위내용은 박사,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보다 특수대학원의 경우가 매우 두드러진다. 이는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실무를 하는 연구자의 참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각 조직 내에서도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무적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이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 위기관리 연구에 있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실험연구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초기에는 내용분석이나 문헌연구, 사례분석 등 질적 연구방법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 질적 연구방법과 함께 과학적 조사방법을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한다는 결과는 위기관리 연구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세 번째, 위기관리 연구영역은 현재 전공분야별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는 공중에 대한 대응전략 중심으로, 행정학 분야에서는 위기관리 체계와 시스템이 두드러진다.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가 아직 독자적인 학문으로서는 자리매김 하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보다 더 다양한 학문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위기관리, 학위논문, 연구동향, 내용분석

1. 서론

위기관리 연구의 역사는 거의 최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위기관리’라는 검색어를 사용해 찾아보면, 1983년 홍한수의 국방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 ‘韓國戰爭과 미루나무 事件時의 美國의 危機管理政策에 관한 比較考察: 政策決定過程의 合理的 模型의 適用限界를 中心으로’가 등장하며,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는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박대근(1989)의 ‘Capital controls and balance-of-payments crises Capital controls and balance-of-payments crises’로 나타난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은 1991년 오웅준의 ‘韓國 高等教育機關의 淘汰蓋然성과 危機管理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risis management for the impending failure of Korean institutions for

higher education'(아주대학교)이 처음이다. 위기관리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는 전문 학술지 탄생도 거의 최근의 일로, 2005년 '위기관리 실천과 이론-한국위기관리논집(KCI 등재후보)이며, 이외에는 전문한 실정이다.

위기관리가 독자성을 가지고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매김 한 것은 1990년대 초·중반 이후의 다양한 재난이 우리 사회를 위협해온 것에 대한 상대적 영향과 필요성으로 판단된다(이재은, 2009). 이후 위기관리는 주로 언론학적 관점, 행정학적 관점 영역에서 꾸준히 다루어져왔다¹⁾. 이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또 실무적 이유에서이든 위기관리는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관리 연구가 30년이 가까워지는 현재에 위기관리 연구패턴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위기관리 연구결과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위기관리 연구의 경향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위기관리의 학문적·실무적 발전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당위성에서 시작된다. 이 논문은 위기관리의 학문적·실무적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간의 국내 학위논문을 살펴보았다. 학술지 및 저서 등을 제외하고 국내 학위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국내 기업 및 정부부처 등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이론과 실무의 접목사례를 가장 잘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근거에서이다. 또한 향후 학술지 논문, 저서, 외국 학위논문의 위기관리의 학문적·실무적 연구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분석틀을 만들어보는데 예도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향후 위기관리의 학제 간 이해의 정도를 보다 높이고,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아내어 용어의 정의 및 국내 적용 가능한 모델, 이론의 개발의 틀을 찾아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위기관리와 위기관리의 관점

위기를 예방하거나 위기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직의 노력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노력을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라고 하는데 이는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과 방법이다. 또 위험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직으로 하여금 통제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위기관리에 대한 주요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학 전공 분야에서 위기관리와 관련 연구논문이 최초로 나온 것은 1987년 대학 학술논집에 발표된 김형렬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이다(이재은, 2009).

Fearn-Banks(1996)는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들의 위험성과 불안 요인을 감소시키고 조직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또 Littlejohn(1983)은 비상사태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계획하며, 필요할 때에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다각적인 조직 차원의 노력으로 위기관리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Coombs(1999)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위기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적인 피해를 줄이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조직 차원의 문화 및 구조 등과 연결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활동이라고 위기관리를 정의했다. 이러한 위기관리는 예방(prevention), 대비(preparation), 실행(performance), 학습(learning)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정의는 사전 예방 차원의 위기관리와 실행 및 학습에 관련된 사후 위기관리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위기관리를 보다 분석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Coombs(1999)는 쟁점관리(issue management),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스테이크홀더 관계관리(stakeholder relationship management) 모두가 위기관리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규정하여, Fink(1986)의 사전 단계, 발생 단계, 사후 단계의 구분을 더욱 발전시킨 모델로 평가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리스크 관리는 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위기관리는 쟁점관리, 리스크 관리, 스테이크홀더 관계 관리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조직 내 리스크를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와 위기관리를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PR의 영역에 위기관리가 포함된 가장 큰 이유도 PR의 주요 영역인 쟁점관리 및 스테이크홀더 관계관리가 위기관리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의 경향 분석

위기관리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포괄적 의미의 사전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주로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위기관리 연구경향을 살펴본 이재은(2009)의 연구를 보면, 최초의 논문이 나타난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위기관리 논문은 2003년 이후 다양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 위기관리 연구는 대학논문집이나 연구기관 논문집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전국학회지 기고 및 게재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기존 행정학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적극적 연구 참여가 두드러지며, 이론 지향적인 논문보다는 문제해결 및 처방을 제시하거나 쟁점을 분석하는 경향 또한 두드러진다. 이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론적 논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문헌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되므로 실증분석, 사례분석 등의 방법적 활용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의 경우 행정학적 관점에서 위기관리를 관찰한 결과이므로 전반적인 위기관리의 연구영역을 살펴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분석대상에 있어서는 학위논문을 다룬 박종렬·김형일·김봉철(2002)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광고학 연구의 흐름을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광고 전문 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1964년부터

시작된 광고학 연구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학위논문, 특히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다룬 권경득(2006)의 연구에서는 논문의 형식에 대한 체계적 분석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범위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정하여 연도별(1974~1994), 학위수여 대학별, Ringham과 Brown(1994)의 분석모형을 기준으로 한 행정학 학위논문의 연구영역 분류, 연구방법 등을 분석, 결과의 디테일한 점이 돋보인다. 그 외 541편의 한국행정학보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영균(1994)의 연구는 통계기법 활용의 시대적 비교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 외, 언론학적 관점에서 논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로는 권영순·이수범(2007)의 연구, 유종숙(2005)의 연구, 이현우(2001)의 연구, 한상필(2008)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술지 연구논문을 분석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현우(2001)의 연구는 우리나라 '자기 성찰적 논문(introspective theme)', 'PR 캠페인 실행 관련 논문(practice or application of public relations)', 'PR이론 개발목적의 논문(theory development in public relations)' 등 3개의 대분류와 함께 각기 대분류 틀에 따른 19개 항목의 소분류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PR 연구의 짧은 역사적 현실에서 나타나는 PR 이론의 다양성 부족, 이론의 편중 현상, 연구논문의 부족으로 인한 연속성 부족, 또한 독창성 부족 등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위기관리 분야 학위논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이 논문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국내 학위논문 중 위기관리를 주제로 한 석사 및 박사학위 현황은 어떠한가? 연도별, 학위별, 학위명별, 연구방법론별, 연구영역별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내의 위기관리를 주제로 한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의 연구영역은 어떠한 학문적 특징을 보이는가?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간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은 위기관리를 주제로 한 논문이다. 위기관리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은 1983년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현황 및 학문적 특징을 보고자 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의 1차적 목적은 위기관리의 학문적 영역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학제간 위기관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이해를 위한 검토가 중요시되므로 최근 10년의 논문

의 틀을 살펴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연구자의 판단에서이다.

해당논문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의 학위논문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어는 ‘위기관리’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검색하였다. 이 검색어에 의해 논문제목에 ‘위기’, ‘위기관리’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학위논문 113건이 수집되었다.

그러나 이 검색어 선정은 다소 임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위기관리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이라 하더라도 제목에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기관리의 주변단어, 예를 들면 ‘위험(risk)’, ‘재난(disaster)’, ‘사과(apology)’ 등의 경우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구의 검색어 범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분석대상인 113건의 학위논문은 코더에 의해 분석되었다. 학위논문 영역의 구분은 주관성을 배제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1명의 코더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유목(analysis category)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석유목은 독립적(independence), 배타적(exclusive)이며, 소진적(exhaustive)이어야 한다(박종렬·김형일·김봉철, 2002). 먼저 이 논문에서 사용된 분석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학위논문 경향 분석 틀

분석기준	분석내용
연도	2001년~2010년
학위내용	석사(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박사
전공학위명	행정학, 언론학, 정치학, 경영학 등
분석방법	질적 연구방법(내용분석, 사례분석 등), 양적 연구방법(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실험연구 등)
연구영역	법, 제도, 정책, 체계, 시스템, 조직, 조직 구성원, 공중 대응전략(대응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 일반(이론, 인물 등), 사례 연구, 위기유형, 기타 등

연구영역의 틀을 만드는데 있어 권경득(1996)의 연구와 이재은(2009)의 연구, 박종렬·김형일·김봉철(2002)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그러나 위기관리와 관련한 분석 유목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행정학 및 언론학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는 이들의 연구를 참조하고 이번 논문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주제의 공통성을 찾아 분류의 틀을 새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연구결과

2) 실제로 본 연구자의 학위논문의 제목도 ‘사과광고 메시지 유형과 공중의 반응’이며,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 국내 위기관리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의 일반적 현황

국내 2010년까지의 최근 10년간 위기관리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은 113편이었다. 편수는 2001년부터 최근에 오기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부터는 매년 10편 이상의 위기 관리 관련 학위논문이 배출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15편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학위논문이 배출되었으며, 박사학위 논문도 2003년에 가장 많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3편).

이중 박사학위 논문은 총 9편(8%)으로 전체 학위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석사학위논문은 104편, 92%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학위논문 및 학위별 학위논문 수량

연도별	학위논문 수	학위별 학위논문	
		석사	박사
2010년	14	석사	13
		박사	1
2009년	13	석사	13
		박사	.
2008년	13	석사	12
		박사	1
2007년	12	석사	12
		박사	.
2006년	7	석사	5
		박사	2
2005년	14	석사	13
		박사	1
2004년	14	석사	14
		박사	.
2003년	15	석사	12
		박사	3
2002년	7	석사	6
		박사	1
2001년	4	석사	4
		박사	.
총	113	석사	104
		박사	9

113편의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일반대학원 보다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특수대학원의 논문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은 40편으로 석사학위 논문 전체의 38.5%를 차지했으며,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64편 학위논문이 배출되었다(61.5%).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연도별, 학위별 학위논문(석사학위의 분류)

연도별	석사학위논문 수	석사학위 대학원별 학위논문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2010년	13	일반대학원	3
		전문·특수대학원	10
2009년	13	일반대학원	7
		전문·특수대학원	6
2008년	12	일반대학원	5
		전문·특수대학원	7
2007년	12	일반대학원	4
		전문·특수대학원	8
2006년	5	일반대학원	2
		전문·특수대학원	3
2005년	13	일반대학원	3
		전문·특수대학원	10
2004년	14	일반대학원	3
		전문·특수대학원	11
2003년	12	일반대학원	8
		전문·특수대학원	4
2002년	6	일반대학원	2
		전문·특수대학원	4
2001년	4	일반대학원	3
		전문·특수대학원	1
총	104	일반대학원	40
		전문·특수대학원	64

전공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학위는 언론학 학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논문의 약 31%를 차지한 35편의 언론학 학위논문(박사 1편, 석사 34편)이었으며, 그 다음은 30편을 배출한 행정학 학위논문(박사 4편, 석사 26편, 26.5%)이다. 그 외 정치학 학위논문 9편, 경영학 6편, 국제학 4편으로 배출되었다.

최근 들어 위기관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위기관리의 주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인문 사회과학 이외에도 공학, 수학, 산업공학 등 위기관리 시스템 및 모델 연구와 위기관리를 위한 광고디자인에 대한 공중과의 인식과 관련성을 연구한 디자인적 관점, 북한의 위기관리 상황의 사례 및 인물의 위기관리 전략을 다루는 북한학적 접근도 눈에 띈다.

학위논문을 작성하는데 사용한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하여 양적 측정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한 박사학위 논문도 2편 있었으나, 위기관리 학위논문의 전반적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이었다(89편, 78.8%). 양적 연구방법은 22편으로 19.5%를 보였으며, 학위별 비교를 하면 언론학의 경우 35편 중 15편이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42.9%)하여 비교적 고른 연구방법 활용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영역에 따라 학위논문을 구분해보면 공중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두드러진다(45편). 공중 대응전략은 주로 위기관리의 주요 대상인 공중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학이 위기관리 학위논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며, 이들 내용도 언론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므로 가장 분포가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위기관리의 체계 및 시스템의 연구주제를 다루는 논문은 31편으로, 공중 대응전략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도 행정학 학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공학적·수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체계 및 시스템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법과 제도적 측면, 정책, 그리고 이론 연구 등의 일반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부분의 관심과 활발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학위논문의 연구영역

연구영역	학위논문 수
법, 제도	1
정책	4
체계, 시스템	31
조직, 조직 구성원	8
공중 대응전략	45
위기관리 일반	3
사례 연구	18
위기유형	4
기타 등	2

※ 연구영역이 2개 이상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경우 이중 표기하여 100%가 넘음

2. 국내 위기관리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의 학문적 특징

국내 위기관리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의 학문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기관리 학위논문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언론학 및 행정학을 중심으로 경향을 살펴보았다. 행정학과 언론학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 1편:4편, 석사학위 논문 26편:34편, 이중 석사학위 논문은 일반대학원 논문 9편:10편,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특수대학원의 경우 17편:24편으로 나타났다.

행정학의 경우 대체로 통계적 접근을 주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 보다는 문헌조사, 내용분석 등 질적 연구방법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방법은 6편으로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연구영역의 경우 체계 및 시스템분야, 공중 대응전략, 조직 및 조직 구성원 순으로 위기관리 연구영역의 학위논문이 배출되고 있었다.

언론학의 경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15편, 질적 연구방법의 논문은 29편으로, 특히 이 학문분야에서 최근 들어 양적 통계기법을 사용한 논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영역은 언론학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대응전략이 24편으로 언론학 위기관리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사례연구가 6편으로 나타나 대응전략과 비교할 때 그 숫자가 매우 미약하며, 그 외에 언론학에서 다룰 수 있는 이론연구나, 유형 등도 현재는 한계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행정학과 인문학의 학위별, 연구방법별 연구영역 비교*

학위명	학위내용		연구방법	연구주제	
행정학	석사 학위	일반 9	양적 6 질적 25	법, 제도	·
		특수 17		정책	2
		총 26		체계, 시스템	14
		박사 학위		4	조직, 조직 구성원
	공중 대응전략				8
	위기관리 일반				·
	사례 연구				4
	위기유형				·
	인문학	석사 학위		일반 10	양적 15 질적 20
특수 24			법, 제도	·	
총 34			정책	·	
박사 학위			1	체계, 시스템	
		조직, 조직 구성원		2	
		공중 대응전략		24	
		위기관리 일반		1	
		사례 연구		6	
				위기유형	
				기타 등	1

※ 연구방법론과 연구주제가 2개 이상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경우 이중 표기하여 100%가 넘음

V. 결론 및 제언

국내에서 위기관리를 독자적 연구영역으로 하여 학위논문이 학계에 배출된 정도는 시간적으로 볼 때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학문의 위상으로 볼 때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도 많은 가치의 정립과 다양한 학문적 시도 등 전반적 변화와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무감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10년간의 학위논문을 살펴보면 서서히 독립적 인 연구 분야로 위상이 나타나고 있는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논문의 자료로는 밝힐 수 없지만 위기관리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필요성과 이에 따른 학문적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적으로 2003년 이전에는 10편 미만의 논문이 발표되던 것에서부터 2003년에 15편의 논문이 배출된 이래 한 해를 제외하고는 논문의 양에 있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재은(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기관리를 연구영역으로 하는 학위논문의 주체를 보면 박사, 일반대학원 학위보다 특수대학원의 경우가 매우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이론적 연구 이외에도 꾸준히 실무를 하는 연구자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각 조직 안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무

적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이다. 다만 위기관리 분야가 학문적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학문적 접근과 질적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위기관리는 행정 및 언론학 중심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같이 이유에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다.

두 번째로,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도 위기관리의 학문적 경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질적 연구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 또한 이재은(2009)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위기관리 연구에 있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실험연구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조금이나마 서서히 나타나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주로 초기에는 내용분석이나 문헌연구, 사례분석 등 질적 연구방법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 과학적 조사 방법을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과 신뢰성을 보다 갖춘 분석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연구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세 번째, 연구자의 전공에 따라 연구주제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위기관리 연구영역은 현재 매우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언론학 분야에서는 공중에 대한 대응전략 중심으로, 행정학 분야에서는 위기관리 체계와 시스템 연구가 두드러진다.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가 아직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학문의 기본 토대가 향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에 맞는 용어의 정립이나 이론의 적용과 발전, 실무적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관점에서의 연구영역도 보다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관리라는 연구영역은 여러 학문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또 하나의 학제 간 연구 분야이다. 국제적, 국내적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그만큼 변화와 위기에 접할 가능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러한 차에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현상을 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실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보다 현실적 발전을 위한 초보적 연구의 목적으로 이 연구는 시작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필요한 연구의 방향제시를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있다.

이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기관리 연구를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향후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관리 관련 학위논문을 추려내면서 '위기관리' 라는 검색어가 들어간 논문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실제 연구 대상임에도 논문 제목에 '위기'나 '위기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는 관련 검색어를 보다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영역의 분류에 다소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위기관리가 독립적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 연구 영역을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이 위기관리 연구영역 분류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분석을 위한 분류는 행정학, 언론학의 분류의 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학술지 및 저서 등을 제외하고 국내 학위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언론학, 행정학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정치학 특히 국제정치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는 국내외에서 가장 연구가 오래된 분야중의 하나이며,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행정학과 언론학 다음으로 양적인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국내 전문대학원에서의 학위논문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질적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영역을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분류의 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위기관리 연구의 발전적 제언을 위해서는 현재 연구의 대상을 학위논문 뿐 만이 아닌 관련 전공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관련 학술지의 연구논문과 한국 학자가 작성한 해외에서의 위기관리 학위논문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의 특성상 외국의 연구경향, 통계방법의 분석 등을 비교하여 보다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양적인 분석 중심의 결과에서 나아가 연도별, 학위별, 학위명별, 연구방법론별, 연구영역별 특징과 석사 및 박사학위의 연구영역 학문적 특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내용분석의 관점에서 구체적 사례유형, 연구방법론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경득. 1996. 한국 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139-153.
- 권영순·이수범. 2007. 우리나라 PR 논문의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 2001년~2005년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9(2): 244-276.
- 김영욱. 2003. PR 커뮤니케이션-체계, 수사, 비관이론의 통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박종렬·김형일·김봉철. 2002. 한국 광고학 연구의 흐름과 동향: 학위논문분석을 중심으로(1964~2001). 한국광고홍보학보. 6(3): 48-79.
- 유종숙. 2005. 국내 정치광고 연구의 동향 및 과제. 한국광고홍보학보. 7(5): 98-133.
- 이영균. 1994. 행정학 연구영역의 변천에 관한 소고: 박사학위 논문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4): 1463-1479.
- 이재은. 2009.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경향 실증분석: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6): 300-308.
- 이현우 역. 2003.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Coombs, T. W. (1999) On Going Crisis Communication).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현우. 2001. 우리나라 PR 논문의 학문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광고학보. 5(1): 165-191.
- 한상필. 2008. 국제광고연구의 동향: 1960년대부터 2005년까지 주요 광고학술지의 내용분석. 광고학연구. 19(4): 89-102.

- Benoit, W. L.. 1995. *Accounts, Excuses, Apologies: A Theory of Image Restoration Strategie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oombs, W. Timothy. 1999. *On 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Thousand Oaks, CA: Sage.
- Coombs, W. Timothy. 2001. Teaching the Crisis Management/Communication Course. *Public Relations Review*. 27: 89-101.
- Grunig, J. E.. 1993. Image and Substance: From Symbolic to Behavioral Relations. *Public Relations Review*. 19(2): 80-98.
- Harrell, J., Ware, B. L. & Linkugel, W. A.. 1975. Failure of Apology in American Politics: Nixon on Watergate. *Speech Monographs*. 42: 245-261.
- Mitroff, I. I. & Anagnos, G.. 2001. *Managing Crises Before They Happen: What Every Executive Needs to Know About Crisis Management*. New York: AMACOM.

白珍淑: 경희대학교에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2006년), 현재 안양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및 (주)휴스콘건설 홍보담당 이사로 재직 중이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 자문위원 및 서울시 위기관리 평가위원을 역임하였다. 연구의 주요 관심 분야는 위기관리의 한국적 이론 개발과 실무적 적용, PR과 페미니즘, 커뮤니케이션 효과 측정 등이며, 주요 연구결과로는 'Benoit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법'에 관한 정당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부처별 담당자들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방안', '사과광고 메시지 유형과 공중의 반응' 등이 있다(jeanniepr@paran.com).

투 고 일: 2010년 11월 15일

수 정 일: 2010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30일

A Critical Review of the Trends Crisis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Jin Sook Paek

Crisis management has been mainly handled in the perspective of journalism and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there has not been reviewed how crisis management research is characterized in spite of 30 years of study in the field. This study looked into theses published in the past 10 years, 2001~2010 in order to understand academic and practical trends. The features resulting from the research can be mentioned as below. Firstly, crisis management theses are more noticeable in specialized graduate schools rather than doctor's degrees and master's degrees in general graduate schools. It means that participated researchers doing theoretical study with hands on experience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This result shows well that there are lots of interests in crisis management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in each structure of the society. Secondly, quantitative study with statistical methods such as a survey, interview of experts, experimental research in crisis management is being on the increase. In the early stage of crisis management, qualitative study such as a content analysis, documentary research and case study was mostly carried out. On the other hand, systematic analysis with qualitative study and scientific research method has been recently done in this field. It certainly leads to bring a development of the crisis management research. Thirdly, the field of crisis management is very limited today. Journalism focuses on countermeasures on public, while public administration deals with crisis management system. However it is evident that crisis management is not still positioned as an independent study. Therefore, a fundamental basis of the diverse studies should be settled.

Key words: crisis management, theses, research trend, content analysis